

친윤·친명 원내대표 되나...국힘 이철규·민주 박찬대 부상

이, 국힘 총선 인재영입위원장 활동...김도읍·김상훈·박대출도 거론 민주, 25~26일 후보 등록...단독 후보시 찬반 투표 후 다음달 3일 결정

여야 원내 사령탑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 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현재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

최대 관심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다. 경찰 출신인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4·10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자리에 만큼 전임 정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대통령실과 가까운 주류 핵심 몫이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중심으로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레이스 초반부터 전면에 나섰다 당내 친윤·비윤 갈등 구도를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다"면서 "당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 김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게파색이 없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이밖에 마찬가지로 4선이 되는 김상훈·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 사람 모두 영남권이라는 점은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패배에 당내 주류인 '영남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출신 지역 외에도 다층적인 변수가 얽혀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판이 곧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 될 수 없는 관계라는 시각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이철규 의원의 '등판' 움직임을 놓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거나, 자의와 관계 없이 '수도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자와의 '연대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정당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후 원내대표 선거에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당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소견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2일 민주당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이 결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연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범야 "22대 국회서 방송3법 재입법·방송장악 국조 추진"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입법각 거부·연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새만금 잼버리' 현장 점검

조직위 청산 준비 절차 등 논의

여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폐막 뒤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새만금 조직위원회(조직위)의 청산 상황 등

을 파악하기 위해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24일 여가부와 조직위에 따르면 여가부에서 잼버리 업무를 소관하는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최문선 청소년정책관 등은 이날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최정환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만나 아영지 정리 상황을 비롯해 조직위의 청산 준비 절차 등을 점검하고, 추가 협의의 시안을 논의했다.

최 정책관은 "조직위 해산이 (기한인) 8월을 넘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위 방문은 최근 발표된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 내용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여야 쟁점 대치...5월 국회 일정 합의 불발

민주 "채상병 특검·쟁점법 처리"...국힘 "쟁점법 제외해야 개최"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4·10 총선을 통해 재차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의 지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진행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

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의 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세인데 김 의장에 게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전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여야의 협치 주권'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초대 우주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임무본부장 NASA 출신 존 리·차장 노경원 과기부 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1급인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을,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성태모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을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했으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한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두고는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노경원 차장에 대해서는 "우주항공청 출범의 산과 역할을 해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행정 전문성 모두 갖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내정한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안정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오늘은!!! 진도아리랑몰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www.jindoairangmall.com

진도아리랑몰 * Natural Food Market *

Organic & Nature

Natural food 자연 식품

Fresh food 신선한 식품

진도아리랑몰 을 검색하세요!

고객센터 061.542.9631